

### 안동권씨 합천종친회 제51차 정기총회 개최



합천종친회(회장 권영록) 정기총회가 4월 9일(일요일) 오전 10시 대명면 아우름센터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흥근 축친의 사회로 상음례와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 부산종친회에서는 권성용 회장 등 5명이 참석하였고, 산청종친회에서 권영복 회장 등 5명이 특별히 참석하였다. 권길상 대총회 상임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로 4년 만에 건강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다며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축하하였으며, 권갑현 홍보관



집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합천종친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고 족친 간에 화합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동술 합천종친회 고문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생 많았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는 시조 태사공의 후예답게 더욱 단합하여 저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자고 말했다. 정기총회는 오후 3시 30분에 모든 일정이 끝났다.

권영인 사무국장

### 안동권씨 영주종친회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2023년도 안동권씨영주종친회(회장 권영창) 정기총회가 4월 1일 영주시내 그랜드컨벤션 웨딩홀에서 종친 회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는 권오기 총무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께 망배를 올린 뒤 참석 내빈소개, 자랑스러운 종친회원패 수여, 회장 인사, 내빈축사, 종친회 결산보고, 현안사항 토의, 오찬, 경품추첨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종친회 행사 축하를 위해 박형수 국회의원, 장욱현 전 영주시장, 박성진, 임병하 도의원, 김병기 시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영주종친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축사를 했다.

권영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4년 만에 개최된 종친회 총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종친회 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4월 23일 울산에서 개최되는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에 많이 참



여하자고 독려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최초 농민 부부 이너스사 어티클럽(개인별 5년에 1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에 가입하고 사회복지단체에 매년 4천만 원 이상을 기부하여 각종 언론에 많이 소개되었으며, 영주종친회에도 발전기금 일천만원원을 지원하는 등 안동권문을 빛내주시 영주종친회 권영호·김동조 부부에게 자랑스러운 종친회원패를 수여하고 선행내용을 소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우리와 같은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2022년도 종친회 결산보고 및 2023년도 사업계획 심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임원 개선편안 및 종친회관 보수문제는 운영위원회에 일임하여 검토하기로 하고 1부 행사를 마쳤다.

2부 행사에서는 오찬을 하면서 가수들의 흥겨운 노래 속에 100여 점의 푸짐한 경품 추첨을 하고 내년도 총회에서 건강할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권오철 영주종친회 운영위원회 총무

### 북야공파 서주공계 참의공 종중 제16회 정기총회 개최



북야공파 서주공계 참의공 종중(회장 권대우 36세) 제16차 정기총회가 4월 8일(토) 10시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가일마을 병곡종택에서 개최되었다. 가일마을을 비롯해 각지에 거주하는 후손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총회는 그간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3년 만에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 컸다.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권대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구초심(首丘初心)의 마음으로 훌륭한 선조의 뜻을 기리고 숭상하며 자손 간 서로 친애하고 화목하며 역량 있는 후손들을 육성하며 젊은 자손들이 고향을 자주 찾아오는 여건을 만들어 종중이 지속 발전해 가도록 모두 노력하자"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참의공 후손 유래(由來)"라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시조로부터 유래와 역사적인 주요 선조, 독립운동가, 종중이 보유한 국가 지정 보물과 국가 민속문화재 등 주요 문화유산에 관한 내용을 종원들에게 알려 참의공 후손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총회 후에는 해설사와 함께 참의공을 위시한 선조들의 묘소를 참배함으로써 조상 숭상 정신을 더욱 고취했다.

가일마을 참의공 종중은 임항조 권 항(權 恒 18세, 1403~1461)이 15세기 초 이곳에 정착한 이래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매우 유서 깊은 가문이다.

임항조 권 항(權 恒 18세)이 1441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이어서 차자(次子) 권 건(權 健 19세)이 1477년 알성문과에 장원 급제하고, 손자 화산 권 주(權 柱 20세)가 1481년 성종친시 문과에 아원으로, 증손자 권 전(權 權 21세)이 1519년 현량과에 급제함으로써 4대를 이어 대과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로서의 위상을 떨쳤으며, 퇴계 이황(李 滉)은 화산 권 주(權 柱 20세)의 장자(長子) 권 질(權 質 21세)의 사위가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갑자사화(1504년)와 기묘사화(1519년)로 인하여 가문이 고조를 겪고 그 종격으로 권 광(權 光 21세)은 "아예 벼슬길에 나서지 말라"는 유언을 함에 따라 잠시 가세가 추축하

였으나 권 광(權 光 21세)의 4대손 구봉 권 박(權 搏 25세)과 5대손 용곡 권 선(權 宣 26세)이 다시 문과에 급제하고 6대손 병곡 권 구(權 渠 27세 불천위)가 영남을 대표하는 대학자로서 명성을 가짐으로써 다시 가문의 위상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와 권 구(權 渠 27세)가 영남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이인좌의 난(1728년)에 연루가 있다고 해서 서울로 압송되어 영조의 친국(親鞫)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영조 앞에서 숨김없이 의연하게 사실을 대담하고 당당하게 처신함으로써 무죄 방면되었다. 이처럼 가일 참의공 문중은 갑자사화에 휘말린 권 주(權 柱 20세),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권 전(權 權 21세), 이인좌 난 때 친국을 받은 후 무죄 방면된 권 구(權 渠 27세) 등 7대 동안 금부도사가 3번이나 다녔던 영남의 유일한 가문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전통 있는 명문가의 위상에 걸맞게 왕성한 학문 활동을 전개하여 30여 명이 각종 문집과 유고를 남겼다.

가일마을은 또한 일제 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였다. 우암 권준희(權準羲 33세 광복회 고문), 권준흥(權準興 33세), 권영식(權寧錫 34세) 등이 광복회 독립군 자금 지원과 모집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6.10만세 운동을 주도한 막난 권오설(權五尙 35세)과 이에 함께 참여한 권오상(權五尙 35세), 권영달(權寧達 34세), 권오운(權五雲 35세)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항일 구국 활동을 한 인물이 20여 명이 되며 이중 6명이 독립 유공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이와 같은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가일마을은 뒷산(井山)이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풍천들과 낙동강이 펼쳐져 있는 길지(吉地)로 경상북도 도정 인근에 있으며 하회마을과 병산서원과도 가깝다. 600년의 전통을 이어온 마을답게 수곡고택과 같은 국가 민속문화재와 병곡종택과 같은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등 다수의 문화재와 문화유산이 남아있어 추로지향(鄒魯之鄉) 안동의 주요 전통 마을의 한 곳이며 안동시가 추천하는 주요 여행지이기도 하다. 북야공파 서주공계 참의공 종중 권순갑(37세)

### 안동권씨북야공파종회 정기총회



권세목 회장

안동권씨북야공파종회 정기총회가 2023년 4월 21일 안동시 태화동 소재 파종회관에서 90여 명의 파종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회의는 국민의례, 묵념, 시조 및 파조 단소 망배, 상호간 음례에 이어 파종회장 인사말, 감사보고, 결산 및 예산안 심의, 금년도 추향 도유사 선임, 파종회보 발간 건협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세목 파종회장은 인사말에서 원근 각지에서 많은 파종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많은 고통을 받다가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튀르키예 등지에서는 지진 피해를 당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족친들은 항상 건강하고 화합하기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의 감사는 감사보고에 앞서 신년도 예산 심의를 4월 정기총회에서 하면 너무 늦으니 9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4월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도유사 선임도 정기총회에서 선임하면 좋겠다는 감사보고를 하였다. 권석호



감사의 사임으로 후임 감사는 김정공계에서 추천하기로 하였으며, 권영화 축친은 파조 신도비각의 기와가 훼손되었는데 빨리 수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도유사 선임 건은 문중별로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책임자를 추천하면 9월 운영위원회에서 재유사와 함께 선임하기로 하였다. 이어 권석환 안동문화원장은 내년 용만 생생 서거 40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하였다. 파종회지 간행은 그만두고 북야공파지를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각처에서 온 족친들의 소개 및 인사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였다.

권오추 부회장

### 안동 능우회 4월 월례회 개최

안동 능우회(慶優會: 회장 권오의) 주최 4월 월례회가 4월 11일 저녁 6시 30분 안동시 태화동 강변마을2길 '촌가칼국수식당'에서 회원 33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권영호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시조 묘소 망배(望拜), 회원 간 상음례(相揖禮), 회장 인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오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월 6일 한식날 시조 묘소 춘향제에 전국에서 참제원(參祭員)이 500여명 참석하였고 제주 성금도 추밀공과 탄원공중에서 1천만 원, 각 파종회, 문중, 단체, 개인 등이 1천 4백여만 원 등 모두 2천 4백여만 원의 성금이 들어와서 고맙기 그지없으며 시조 묘소 초헌관도 덕망이 있는 좋은 헌관님을 모셔서 감사하며 참제원들의 덕분에 순향제를 무사

히 마칠 수 있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권영호 사무국장은 지난 2월 2일 안동대총회 사무실에서 능우회 인수인계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5개 항의 경과보고와 정기예탁 및 잔액 등 재무보고도 하였다.

권오의 회장은 "오는 4월 23일 오전 10시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제32회 안동권씨정장년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능우회원들이 많이 참석하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6월 10일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길에서 개최하는 현덕왕후(顯德王后) 기신제(忌辰祭)에 능우회원이 많이 참석할 것과 이를 6월 월례회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제3대 능우회장을 역임한 권혁록 회원이 견배 제의를 하고 칼국수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정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능우회 월례회는 격월제로 두 달에 한 번씩 짝수 달에 모임을 갖는다.

권영건 보도부장

###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34)



당나라는 초기 2대 황제 태종(太宗, 이세민李世民, 599~649, 재위 626~649)의 정관(貞觀)의 치세(治世; 627~649)에는 절약과 검소함을 으뜸으로 하여 사치스런 생활을 삼가하여, 황실에서 개(견우; 애완견·군용견/구狗; 식용·양두구육羊頭狗肉/죄근 '한국의 개 사육 숫자가 1,500만 마리나 된다'는 사실은, 구미歐美; 유럽과 미국의 귀족이나 상층부의 호화사치와 사냥용 개 사육을 무지몽매한 바보들이 신 시대주의에 물들어, 불법-공공주택; 개인 집의 마당과 뜰도 없는 아파트·빌라 등에서는 개·고양이사육 금지-을 저지르며 1~3마리씩 이상을 키우고 있다는 현실은 망국의 조짐이 아닌가?!)나 매(鷹鷹)의 사육을 금하고 피서용 별궁의 수축을 중지하며 궁녀 3천 명을 귀가시키거나 결혼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태종과 6대 현종(玄宗)의 개원(開元)의 치세(713~741) 그 중간에 축천무후(則天武后, 624~705, 태종의 후궁)가 고종의 황후가 되어 수렴정치(武后政參決制) 및 고종 사후 아들 중 태자 2명과 황제 2명을 폐하면서, 스스로 국호를 '주(周)' 나라를 세우고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가 되어(690~705) 행한 실질적인 정치적 지적을 이룬 기간(684~705)은 당(唐)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대내외적으로 융성한 것으로 평가하는 역사가들도 있다.

당나라 현종이 18세 아들 수왕(壽王)의 비妃를 후궁(양귀비)으로 삼아 사랑한 천보(天寶) 연간(742~756)의 초기 이후 안록산과 사사명의 반란 및 그 후 14황제 가운데 선종(宣宗)의 정치(846~860)가 짙고 빛을 발했을 뿐이고, 대체적으로 황제들이 암매포악(暗昧暴惡)하고 금단(金丹; 도교의 '내단 내丹'으로 금을 분리 정제할 때 수은을 사용)에 맹독(猛毒)의 수은에 중독되는 현상이 빈발하였다. 환관들이 당파를 이루고 황제를 시해(弑害)하고 갈아치우는 등 궁정 내에서 쿠데타와 역(逆)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내리막길 정치로 치달았다.

이 무렵 문종(文宗) 태화태상(827~835)에 대과(진사進士)에 장원급제를 한 우승유(牛僧孺, 779~847)와 부친이 재상이고 조부가 어사대부인 문벌출신 이덕유(李德裕, 787~850)가 당파를 이루어 환관의 당파와 서로 결탁하여 우의의 둘 가운데 한 사람이 재상이 되면 반대파는 모두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유배를 보내버렸다. 문벌(門閥)이 없는 진사출신은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진보적 성향이고, 문벌출신들은 보수적인 정치성향으로 대개 동서고금의 보편적 현상이다. 고려조의 문종과 인종 때의 치세와 이자겸의 외척정치 이후 무신병란·정치 이후 몽고침략 및 조선조 선조(宣祖) 때 동인과 서인의 당쟁성격과 기축옥사(獄事; '土禍'였다) 이후 일본의 침략인 '임진왜란' 성격과 유사하다. 문종 때는 우승유가 무종 때는 이덕유가 재상이 되자 그 반대파는 조정에서 숙청되어 지

방으로 쫓겨 갔다. 선종이 즉위하자 우승유를 재상에 임명되고 중앙에 복귀하였고, 이덕유를 재상직에서 해임하고 해남도에 귀양 가서 3년 뒤(849년) 그곳에서 죽었다. 우승유도 선종 즉위 다음해(847년)에 죽었다.

선종 대종(大中)원년(847년)부터 약 40년간 이어져왔던 당쟁은 국력의 소모뿐만 아니라 정치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변진(藩鎮) 절도사들의 발호와 세습, 왕선지와 황소의 난 등 병란(兵亂)으로, 고아 출신으로 황소의 부하가 되었다가 배반하고 당나라에 귀순하여 4지역의 변진절도사가 되었다가 소종(昭宗)·예제(哀帝) 마지막 두 황제를 시해(904~907년)하고 당나라(618~907)가 끝난 절도사 출신 주온(朱溫, 852~912)에게 망하였다. 그는 또한 오대십국(五代十國) 첫 왕조인 양(梁, 907~923)나라의 태조가 되었지만, 아들(郢王: 주유구)에게 시해 당하고(912년) 17년 만에 양나라도 망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당나라의 '영정혁신(永貞革新)'이라 높게 칭송하였던, 혁신정치의 지도(治道)를 언행으로 적극실천한 주인공인 왕숙문(王叔文, 758~806, 월주 산음출신)이 유종원과 유우석(劉禹錫, 772~842)을 기용하여 함께 개혁단체에 참가하여 환관·변진 절도사들 세력에 비판하였다. 환관들의 병권(兵權)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이 개혁정치가 실패한 후, 유종원은 낭주사마로 좌천되었다가 후에 연주자사(漣州刺史)가 되었다. 이후 재상 배도(裴度, 765~839)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태자빈객 겸 검교예부상서가 되어 세간에서는 '유빈객'으로 불려졌다. 이 무렵을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 문화가, 정치가인 유종원(柳宗元, 773~819)은 일찍이 유우석 등과 함께 왕숙문의 혁신단체에 참가했으나, 실패하여 영주사마로 좌천되었다. 이후에 영주자사(柳州刺史)를 지내 '유유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유(韓愈, 768~824)와 함께 고문운동(古文運動)을 제창하여 거의 1천년 동안 귀족 출신의 문인들에게 애용된 병려문(駢儷文)에서 작가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다. 한유와 함께 '당송8대가(당2인, 북송6인)'에 속하여 '한유(韓柳)'라고 병칭되었다.

그러나 철학의 이론에서는 한유와 큰 견해 차이를 보여, 하늘(天)의 의지유무(意志有無)에 관해 논쟁을 벌였다. 유종원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는 오직 원기(元氣)만이 존재했으며, 천지가 나누어진 뒤에도 원기는 천지 중에 있다고 생각했다. 원기 위에 천이라는 최상위 개념이 있는 것을 부정하여 하늘이 상과 벌을 내린다는 '천명론(天命論)'에 반대했다. 질문에서 전형적인 사물을 예로 들어 심오한 철리(哲理)를 제시하였다. 유종원과 교분이 매우 두터워서 '유유(劉柳)'라고 병칭되기도 했으며, 항상 백거이(白居易, 772~846, 자는 낙천樂天, 호는 취음선생醉吟先生·향산거사香山居士)와 시문(詩文)을 주고받는 등 동갑(同甲)으로 절친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유백劉白'이라고도 같이 칭송되었다. (다음호에 계속)